

치료조성분별 누적현상 파악을 위한 제지공정 시뮬레이션모델 구축

Modelling of papermaking process for evaluating accumulation of furnish components

윤혜정 · 이학래 · 함충현 · 이상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산공학과

ABSTRACT

제지공정은 섬유, 충전물, 고분자 등 다양한 고체상 성분과 물로 구성된 지료가 수많은 단위공정을 거치면서 농축, 회석, 분급, 탈수 등의 과정을 통해 종이로 제조되는 매우 복잡한 공정이다. 또한 현재 초지기는 200 m/min 이상의 속도로 운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단위 설비의 효율을 높이거나 공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으며 실험상으로 수행하기에도 스케일과 연속된 공정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데 제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초지 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설비와 변수를 조절하는 연구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웨트엔드에서의 외란에 따른 초지 공정의 영향, 지절 시 공정 변화, 드라이어 모델링, 지종교체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모델들은 지료를 하나의 성분으로만 고려하여 웨트엔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에 그쳤다. 웨트엔드에서의 거동은 지료 조성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즉, 장섬유분과 미세섬유분의 보류는 각각 다르며, 백수 순환 시 이러한 물질들의 누적 비율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조성분별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실제에 가깝고 웨트엔드를 더 잘 모사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트엔드 공정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시뮬레이터인 Pacific Simulation사의 WinGEMs Ver 5.0을 이용하여 지료 조성분별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류 또는 분급에 따라 섬유상 성분들의 변화와 누적 현상을 평가하였

다.

사 사

본 연구에 수행에 있어서 시뮬레이터인 WinGEMs Ver 5.0의 사용에 도움을 주신 미래엔지니어링(주)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두뇌한국 21 핵심사업과 서울대학교 신임 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